“북 비대칭 위협 대응과 4대 방산수출국 도약 중점”

신범철 차관 라디오 시사프로 출연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내용 소개
확장억제 강화 한미 공조 순항 강조



신범철(사진) 국방부 차관은 12일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강화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을 향한 기반 마련이 올해 국방부 핵심 추진과제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강시사’와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신 차관은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이라는 타이틀에서 3축 체계와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며, 군 인권·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업무계획에) 담았다”며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능력과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 마련을 중점 보고했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무인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인가를 담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해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양상 변화에 따라 우리가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또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신 차관은 “북한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 접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은 자위권의 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신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방안에 대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고 실무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장억제를 어떻게 내실화해 신뢰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더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다든가, 시나리오별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며 “그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한미 공조는 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현우 기자

국군의무학교, 전투부상자처치 교육 확산·정착 박차

전문교관 양성기관 인증·현판식
TCCC 교육 전군 확산 기여

국군의무학교가 전투부상자처치(TCCC) 교육의 확산·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무학교는 12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TCCC 전문교관 양성기관 인증·현판식을 했다.

TCCC 전문교관은 전투원에게 TCCC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의무학교는 2021년 미국 응급구조사협회(NAEMT)에서 국제 기준의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TCCC 교육의 전군 확산을 목표로 전문교관 양성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의무학교는 군 양성기관 확대를 위해 육군본부 의무실, 부사관학교와 협의해 양성기관 인증을 준비했다.

부사관학교는 과목체계, 교육시설, 교보재, 교관 운용·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또 전문교관 38명이 의무학교 TCCC 교육과정을 수료해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2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전투부상자처치 전문교관 양성기관 인증·현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부사관학교는 올해 3월과 11월 훈련부사관 2개 과정을 운영해 240명을 TCCC 전문교관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초급리더 과정 8개 기수 1800여 명을 대상으로도 TCCC 교육을 진행해 전문교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의무학교는 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기관 인증평가체계를 확립해 TCCC 전문교관 양성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혁(육군대령) 의무학교장은 “다양화·특성화한 실전적인 교육으로 우리 군의 승리를 보장하는 전투력 유지·보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해상병 전역 예정 장병에 취업 문 ‘활짝’

해군3함대, 고용노동부와 지원행사
전문적 교육·컨설팅·체험기회 제공

해군3함대가 청년 장병 취업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3함대는 12일 부대 복지관에서 해상병 675기 전역 예정 장병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장병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 장병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와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중소·강소기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행사는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하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서 장병들은 분야별 직무 소개·특강, 담당직원과의 대화, 초빙 강연, 이력서 작성법 최신 트렌드, 경쟁력을 높이는 입사 지원 노하우 교육 등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신지상 병장은 “전역 후 취업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우수한 중소·강소기업의 정보를 얻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3함대는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해 장병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경덕(중령·진) 인사과장은 “취업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사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취업 고민을 덜어 줬다”며 “전역 장병들이 사회에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국군강릉병원 부대원들이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 기부한 연탄을 쌓고 있다. 부대 제공

어렵고 소외된 이웃 구들장에 온기 지폈다

국군강릉병원 연탄 나눔 봉사활동

한겨울 장병들의 땀방울이 지역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강릉병원은 12일 “부대 인근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가정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날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과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나눠 주고자 마련됐다.

정환영(육군중령) 병원장과 50여 명의 부대원은 추운 날씨에도 기부한 연탄 2000장을 나르며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국군강릉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기부·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광식(육군대위) 군종목사는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인사

◈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정기영 △국제협력관 윤창문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재준

국방·안보의 모든 것
KOOKBANG dema.kr
인트라넷 kdd.dema.mnd.mil